

“내란 비호·노동 혐오 김문수 당장 내려와야” 금속노조,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윤석열 반노동 정책 고수 규탄

금속노동자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장관 사퇴·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도 기존 반노동·노조 탄압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무시하고 노조 혐오하는 김문수는 애초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그간 노조 탄압으로도 부족한지 김문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반노동 정책을 강행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기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론 못매에도 김 장관은 다음 날인 6일



“계엄은 다 풀렸다. 대통령이 퇴진하면 좋아지는 게 있냐”라며 내란 옹호를 이어갔다.

‘노조 파괴 주도’ 노동부 장관,
이제 내란 옹호까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태 방조를 질타했다.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거부했다. 의원들 야유에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란 옹호뿐만이 아니다. 김문

수 장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에도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를 고집한다. 기존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처럼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

장창열 위원장은 “윤석열과 노동부가 타임오프 등을 이용해 노조 파괴와 노사관계 파탄을 꾀했다”라며 “김문수 장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멈추기는커녕 이를 더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반대에도 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강화

한다. 노조와 조합원 세부 자료 제출을 강요한다. 타임오프 현황 파악을 빌미 삼아 전국의 금속노조 사업장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장창열 위원장은 “날마다 중대재해가 터지는데도 노동조합 들쭉시는 일과 내란 옹호에만 열심인 노동부 장관은 단 하루도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가 김문수 사퇴를 시작으로 노동 현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김문수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고용 승계 요구하며 고공농성 353일 차를 맞은 한국유타칼하이테크 현장 탄압으로 72일째 전면 파업 중인 태경산업, 사용자 거부로 단체교섭도 열지 못해 37일째 곡기 끊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헌정 질서 파괴자 옆을 지키는 노동부 장관이라면 끌어내리는 게 정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정부와 노동부에 ‘김문수 장관 사퇴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장창열 위원장과 엄상진 사무처장은 ▲노동부 장관 사퇴 ▲노조 탄압 정책 중단 등을 재차 촉구했다.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발레오,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동자들의 투쟁 이야기

우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글을 쓰기 위해 세 사업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고작 들여다보며 느낀 고통을, 그 일들을 직접 겪어내고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이 그 고통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 책은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지회 투쟁을 서술했으나 결코 그들만의 싸움은 아니다. 복수노조와 교섭장구 단일화가 쟁점이 된 모든 사업장에서 겪는 무자비한 탄압이었고 그에 맞선 투쟁이었다.”

발간사 중

2024년 하반기 회보 편입 | 이황미 지음 | 368쪽

도서구입 안내

구입문의 | 조남덕
 제작번호 | 우리은행 023-249806-02-101
 <예금주 조남덕>